

치유의 웃음을 짜는 마스터

산티 바니(게인즈빌 아워 운영자)

산티 바니씨는 작년 미국에서 취산 선생님을 만난 인연으로 제3회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 통화' 관련 강의를 해준 분입니다.

저는 어느 날 뜻밖에 취산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분명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단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지역 통화 운동을 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바로 그러하며 내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플로리다의 올란도에 있으며 게인즈빌에 나를 보러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와 사랑의 에너지를 지닌 이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2주 후, 취산 선생님이 올란도에서 함께 사는 딸과 사위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삶에 대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 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실을 가득 채운 그의 당당한 기운으로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며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산 선생님은 1998년 9월, 제 2회 신과학 심포지움에 나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나를 한국까지 초청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 하게 하려는 것에 놀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초청해주신 것은 영광이지만 저는 지역 통화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도시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내가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가 서울로 초청해서 "사랑의 돈 (LOVE MONEY)"과 물물교환망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두 달 후 올란도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으며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해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알고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치유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감정이 풍부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나를 육체 너머로 이끌었습니다.

취산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가 나의 영혼의 아버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며 눈빛으로 나를 격려하고 내 안의 민감하고 약한 부분을 감지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움의 언어였습니다. 취산 선생님과 함께 있음

으로써 저는 동양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경험을 말로 옮기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의 자기 존중은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옷감에 그의 금빛 무늬를 수 놓아 주었습니다.

1998년 심포지움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취산 선생님은 1999년 심포지움에 나를 초청했습니다. 그후 취산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99년 어느 날, 저는 미내사의 이원규 국장에게서 e-메일로 9월 12일에 서울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서울 행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게인즈빌 시장에게 “서울과 게인즈빌을 위한 조화와 평화, 번영의 성명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 책 산티 바니 강연록 참조)그녀는 9월 7일에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취산 선생님이 육체를 벗고 저 세상으로 가신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분을 뵈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9월 12일 심포지움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정우일 씨가 취산 선생님을 위한 시를 써서 읽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취산 선생님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새로운 친구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나에게 Mr.리, Ms.윤, Ms.주, Ms.홍, Mr.김 Ms.장, Mr.권, Mr.한, Mr.유, 메루,Mr.손, 부르스 모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보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취산 선생님은 인류를 치유하는 옷감을 짜는 마스터입니다. 그는 생을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짠 옷감은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입니다.

저는 2000년에도 다시 심포지움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산티 바니

Shanti Vani <s.vani@worldnet.att.net> Phone (352)337-1112.